

광양 '해비치로 달빛해변' 27일 개장식과 함께 본격 운영 돌입 공연·체험·먹거리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 출발

광양시는 오는 2월 27일(금) 오후 5시 40분, 마동 1301번지 일원에서 '해비치로 달빛해변'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해 약 1만 5,000㎡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151면 규모의 주차장 ▲버스킹 무대 4개소 ▲푸드트럭존 ▲화장실 1개소 ▲야자수와 잔디가 어우러진 녹지공간 ▲그늘쉼터 6개소 ▲통나무자 2개소 등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해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개장식에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경

과보고, 기념사, 축사, 개장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LED 버튼을 활용한 개장 선언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통해 '해비치로 달빛해변'의 공식 개장을 알릴 예정이다.

식전공연에는 지역 청소년 댄스팀과 오카리나 연주팀, 플루티스트 서가비가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준다. 개장식 이후에는 버스킹 공연 3팀의 무대와 플라멩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광양시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을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는 둘째·넷째 주 금요일마다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이 시민의 일상 속 휴식처이자 광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개장식에 앞서 현수막 게시, 언론 보도, SNS 홍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교통·위생·안전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문화재단, 2026년 통합 공모사업설명회 개최 연중 문화사업 한눈에... 시민, 예술가 맞춤형 안내

나주문화재단이 2026년도에 추진할 문화사업 전반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주문화재단은 오는 2월 24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2026년 나주문화재단 통합 공모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재단의 연중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공모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재단은 2026년 추진 예정 사업 전반과 함께 총 5건의 공모사업 개요, 신청 방법, 서식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 대상 사업은 나주형 커뮤니티 발굴사업 '취향살롱',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나빌레라문화센터 전시공간 지원공모, 나빌레라문화센터 창작실 입주자가공모, 미디어 콘텐츠 활용 장소 지원 등 5건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안내와 더불어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해 시민과 예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단과 지역 문화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반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 향후 운영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전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 재단과 시민이 함께 지역문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시민활동가 등 지역 문화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

와 산책로에 인접한 지역에 관내 스마트도서관 6호점을 짓는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여섯 번째 스마트도서관은 효천역과 중흥5블래스 에코 시티 사이에 들어선다.

지난 2023년 효천공원에 효천1지구 첫 번째 스마트도서관이자 관내 다섯 번째 스마트도서관을 문 연 뒤 3년 만에 추가 조성에 나선 것이다.

이곳에 새롭게 짓는 이유는 관내 스마트도서관 5호점 가운데 인구가 많은 효천1지구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 효천1지구 '스마트도서관' 만든다

수요 인구 많아... 오는 6월에 개관 목표

또 거점 도서관인 구립도서관이 도심 및 효천2지구에 자리 잡고 있어 효천1지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남구는 지난 2019년 푸른길공원 빅스포 뒤편 1호점을 시작으로,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뒤 2호점, 백양로 남광주농협 맞은편 3호점, 다목적체육관 입구 4호점, 효천1지구 효천공원까지 총 5곳에서 스

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도서관 5곳에서 제공한 도서 대여 실적은 총 2만 2,953권으로, 이중 효천1지구 스마트도서관 5호점만 1만 2,500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스마트도서관 6호점 조성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주민들이 365일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를 비롯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도 비치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봄부터 스마트도서관 부스 설치 등 기초공사를 시행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내 주민 모두가 책과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스마트도서관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3권까지 최대 15일간 책을 빌릴 수 있다.

/김명수 기자

강진군이 지난 12일 강진푸소센터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보조금 집행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군민이 주체가 되어 즐기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단체

강진군,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운영 지침 교육 실시

군민이 주체가 되어 즐기는 문화예술 기반 마련

45명, 종교 관련 단체 10명, 박물관 운영 단체 5명, 기타 문화예술 관련 단체 8명 등 총 68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과 운영 지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집행·정산 절차, 부적정 사례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 약 1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인건비 시·군 대비 2~3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박물관, 종교 단체, 예총,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타 시·군에서 미지원 또는 저지원되는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 사업비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1개 단체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문화예술단체는 행사와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교육이 올바른 보조금 운영을 통해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소장 작품 '남겨진 돌, 흐르는 시간'展 개최

시간 위에 남은 돌, 사진으로 만나는 운주사의 기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소장 작품을 활용한 사진전 '남겨진 돌, 흐르는 시간'을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운주사에 남아 있는 탐과 불상 등 문화유산을 기록한 사진 작품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축적된 기억과 공간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좌불상, 석탑, 석불 군상 등 운주사의 주요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 작품들이 소개된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온 탐과 불상은 계절과 빛, 날씨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운주사의 문화유산을 보다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기피와 역사적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이 소장 중인 운주사 사진 작품 가운데 전시에 적합한 작품을 선별해 구성했다. 지역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축적해 온 문화관의 역할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진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다 더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주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인식 확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전시는 문화관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 061-379-5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